

“왜곡됐던 ‘여순사건’ 진실 불씨 지피고 싶어”

백시중 작가 ‘여수의 눈물’ 퍼내 어린시절 경험에 현장취재 덧붙여 “특별법 통과돼 상처 치유됐으면”

“만 72년 만에 숙명처럼 밀려왔던 ‘숙제하기’를 비로소 끝냈다. ‘여순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뇌리에 새겨져서 는 안 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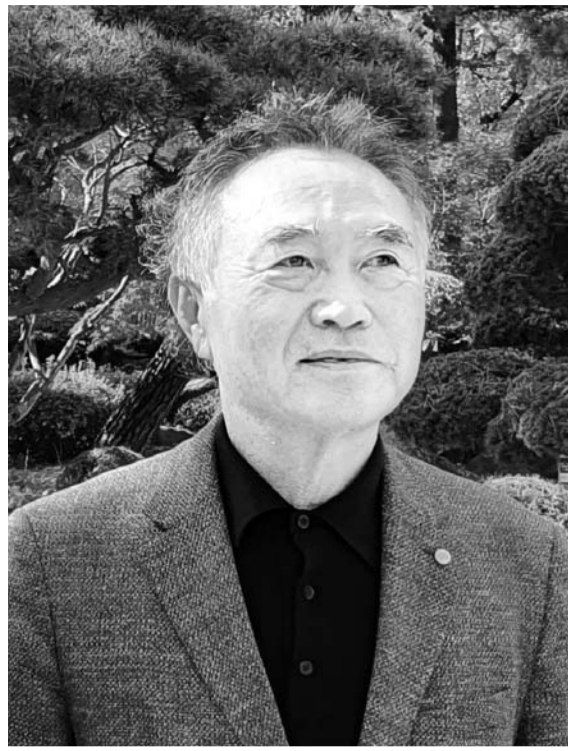
작가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실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 역사가 씌어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72년 만의 숙제라면, 필생에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라는 의미였다. 한편으로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붙고 살아왔다는 얘기다.

백시중 작가. 그는 여수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광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신춘문예(66년)에 ‘자라지 않는 나무’로 문단에 나왔다. 글을 쓰는 작가로서 여수와 순천은 ‘너무도 아픈 손가락’이자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기자는 이번에 장편 소설 ‘여수의 눈물’을 퍼내 작가와 통화를 했다. 현재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는 작가는 “비로소 마무르고 미뤄왔던 과제를 마쳤다”는 말로 감회를 정리했다. ‘비로소’, ‘미뤄왔던’, ‘과제’라는 각각의 단어는 지난한 시간과 아울러 밀쳐놓 수 밖에 없었던 회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언젠가 근대사 박물관에서 봤던 한 장의 사진이 오래도록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렇게 퇴색한 흑백사진이었는데 어느 경찰서 뒤뜰이었다. 앵글 안에 들어있는 스물여덟 명 모두 누더기를 걸친 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한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껴입은 탓이었지만 그보다 생포되어 끌려온 터라 자신들의 생존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듯했다.”

백 작가에 따르면 사진 속 사람들은 이른바 빨치산으로 불리는 지리산 공비들이었다. 포승줄에 묶인 그들은 비록 육신의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다.



그때 보았던 사진은 작가의 뇌리에 또 하나의 장면을 선명하게 불러냈다. 1948년 10월 18일, 당시 다섯 살이었던 작가는 여천 군청사 뒤쪽에 살았다. “중고산 쪽으로 난 골목을 조금만 올라가도 동백꽃 만발하는 오동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부모님의 고향이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담겨 있는 곳이다. 작가는 “그날 새벽 풍 부는 총소리를 들었고 포승줄에 묶인 채 총살 당하는 제복 입은 남자들의 죽음을 보았다”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로부터 2일 후엔가 “철모에 흰 피를 두른 진압군들이 무더기 상륙했고, 여수는 불바다가 됐다”는 것이다. 백 작가는 그 불은 군인들이 질렀는데, 주민들을 강제 집합시켜 놓고 빈 집에 석유를 끼얹고 불씨를 던졌다고 부연했다. 그즈음 그는 꿈을 꿴다 하면 공 부는 총소리와 흥건한 핏물의 장면과 마주해야 했다. 말 그대로 암울한 소년기였다.

“중앙시장과 여객선 뱃머리와 그리고 여수역으로 가는 삼거리 중심에 여수 경찰서가 있었다. 그 길목에 포승줄에 묶인 남자들이 시레기처럼 엮여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가마니가 이불처럼

럽 덮여 있었지만 그 밑으로 흥건히 흐르는 피 범벅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이번 소설을 쓰기 위해 작가는 현장 취재를 꼼꼼히 했다. 꼬박 1년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친구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났다. 더러는 생존해 있는 이들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들었다.

작가는 현장 취재를 하면서 자신과 연배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그 사람도 자신처럼 그날의 비극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란군을 도와겠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아 비규환 자체였다”는 말을 잊지 못하더라는 거였다.

소설은 서울 사립대학에서 정년퇴임한 화가 병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폐교를 구해 작업실로 쓰려던 중 어린 시절 떠나온 고향 여수에 맞춤형 공간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다. ‘여수’는 병수 가족에게도 금지된 말이었다. 병수가 어렸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은 곳이다. 여수 폐교를 방문한 병수는 어느 교실 뒷벽에 환경미화를 위해 붙여져 있던 반공사진 ‘여수순천 10·19사건 현장사진’을 발견한다. 이 사진을 계기로 당시의 참상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이어진다.

“당시 제주에서 4·3사건이 일어나자 14연대 부대원들에게 진압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14연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죽일 수 없다는 이유로 회귀를 해버렸고 이것이 우리 반란군이라는 명제가 씌워졌다.”

작가는 ‘여순사건’의 폭력과 공포, 그 잔혹함을 생생하게 되살려내지 않고는 결코 여수와 순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고 본다. 소설 제목이 ‘여수의 눈물’인 연유다.

한편 소설 본문 삽화와 표지화는 홍익대 미대를 졸업한 이준섭 화가가 그렸다. 소설을 읽으며 서사의 줄거리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현장감 넘치는 그림을 보는 감동과 재미도 만만치 않다.

백 작가는 하루 속히 특별법이 통과돼 여수와 순천의 상처가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첫 단추는 바로 특별법 제정이다.

“더 늦기 전에 그날의 참상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식적으로 정부가 사과를 한 상태 아니다. 무수히 죽어간 영혼을 위로하고 빨갱이 후손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숨죽이고 살았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후세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극장 연극, 관객과 배우를 잇다

씨어터연바람 ‘연극 있다...’ 서울·광주 등 6개 극단 참여

씨어터연바람이 올해도 ‘연극 있다... 있다 페스티벌’을 진행중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은 소극장에서 열리는 연극이 오래도록 관객과 만나기를 바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오색빛깔 오색마당’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서울·부산·춘천·구미 등의 극단이 등장해 다양한 레퍼토리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참가하는 극단은 부산 극단 시나위, 서울 어드벤처프로젝트와 스튜디오 9, 춘천 도모, 구미 극단 공터다. 광주 극단 푸른연극마을 등이다. 이들은 작품마다 각기 다른 매력과 개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에는 춘천 극단 도모가 ‘아버지와 살면’을 선보인다. 이야기의 배경은 1948년 7월이다. 3년 전 히로시마에 미국 폭격기 B29가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번쩍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녹아버리고 사라진 후 어느 여름날이다. 미쓰에는 3년 전 히로시마의 하늘

에서 벌어졌던 그 순간의 섬광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늘에서 번쩍이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다. 두 부녀는 도서관에서 미스에 앞에 나타난 해군 장교 출신 기 노시타를 두고 알콩달콩 실랑이를 피며 이야기가 펼쳐진다. 14일 오후 5시 무대에 오를 서울 극단 스튜디오 9의 ‘동물인 이야기’는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

이외 ‘단막극 열전’ 시리즈에서는 ‘아빠들의 소꿉놀이’, ‘이름을 찾습니다’, ‘지상의 주민들’ 등이 무대에 오른다. ‘온라인 희곡 낭독전’은 시민과 배우가 함께 읽는 희곡낭독으로 공연작가의 ‘은주의 영화’, 양수근 작가의 ‘아빠는 오십에 잠수함을 탔다’ 등이 유튜브 연바람TV를 통해 공개된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광주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고백:얼굴 뒤의 얼굴’로 연극계 첫 포문을 열었으며 서울 극단 어드벤처프로젝트가 ‘헬로우 미스미스터’, 부산 극단 ‘시나위’가 ‘귀가.집으로 가는 길’을 선보였다. 각 연극당 입장료는 2만 원이며, 프리패스티켓을 구입하면 60% 할인된 가격에 모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0일 공연하는 춘천 극단 도모의 ‘아버지와 살면’.

ACC 창·제작 작품 잇따라 전국 무대 오른다

‘춤추는 과학자’·‘얼쭉’·‘자유결혼’ 대구 등서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창·제작한 작품이 잇따라 전국 무대에 오르면서 문화창작발전소와 공연예술 유통 허브라는 지향에 청신호가 켜졌다.

ACC가 제작한 청소년 진로체험 마인극 ‘춤추는 과학자’와 ‘쿵짝 두 번째 이야기-얼쭉’ (얼쭉), 영화 다빙-썸 ‘자유결혼’ 이 다른 도시 공연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에 앞서 ACC가 제작한 ‘보야르의 노래’가 어린이 공연 최대 국제시장이 청소년국제공연예술총회 2021년 공식 쇼케이스 작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일련의 과정은 창작발전소와 유통 교두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 일상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춤추는 과학

자’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다. 마임과 강연이 결합된 융복합형 진로체험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구체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11월-12월 지역 내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간다. 꿈길(www.ggoomgil.go.kr)로 신청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뮤지컬 ‘쿵짝 두 번째 이야기-얼쭉’은 단편소설 ‘메밀 꽃 필 무렵’, ‘봄봄’, ‘고무신’을 각색한 창작 뮤지컬이다. ‘얼쭉’은 2017년 초연을 시작으로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오는 15일까지 서울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영화 다빙-썸 자유결혼’은 국립극장 제1회 창작희곡



‘자유결혼’

공모 당선작인 ‘자유결혼’ (하유상 작)을 영화화한 ‘자유결혼’에 노래와 율동, 대사, 효과음악을 결합한 영화 더빙 공연으로 오는 14일 대구 예술아트센터 합지홀에서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라도 음식·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황풍년 작가 초청 강좌

10·1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전라도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나아가 전라도 음식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전라도 마을과 공동체 문화는 어디에서 연유할까?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을 운영한다. 10일부터 11일(오전 10시) 이틀간을 걸쳐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강사는 황풍년 작가. 먼저 10일에는 ‘전라도의 힘

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황 작가는 전라도마을에 담긴 전라도의 마음, 전라도에 대한 이해와 진실을 풀어낼 예정이다. 11일에는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을 주제로 전라도 문화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대해 강연을 한다.

수강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10일까지 선착순 방문접수(광주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 하면 된다.

한편 황풍년 작가는 전라도 닷깃 편집장으로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 ‘벼꽃 피는 마을은 아름답다’, ‘뽕년 식탐’ 등의 책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3>100세의료기 나주점</h3> <p>전남 나주시 나주로 211(성북동) 복지용구, 장애인, 보조기기, 환자간호용품, 위생용품 병원처방용 건강체크기, 가정산소발생기대어 제할용품 각종 물리치료기, 찜질기 전동스쿠터 판매 및 수리 ☎ 061)930-1038, 010-8811-9116</p>	<h3>법무사 김운회사무소</h3> <p>목포시 정의로 26-4법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p>	<h3>국수나무 광주신안점</h3> <p>북구 서암대로 95 (신안교앞 고은@상가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p>		
<h3>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h3>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h3>법무사 이영석사무소</h3> <p>동구 범설로 16-1(자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명서,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p>	<h3>보광세탁소</h3> <p>동구 지산1동 동명로 73-2(구 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 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h3>응추해신삼계탕</h3> <p>북구 저불로 93(용봉동 3차현대아파트 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 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준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질·신용·본위 ☎ 062)523-1003, 010-5355-0867</p>	<h3>평화이사소파</h3> <p>북구 운암동 794-13(대자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료소파, 업소용 제작 천장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장이 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대연건설</h3> <p>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작·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p>	<h3>하나부동산사무소</h3> <p>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정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 본위 ☎ 062)233-5155, 010-3615-5155</p>	<h3>초대화랑</h3> <p>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천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h3>새서림 떡방앗간</h3> <p>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p>	<h3>매산철거·삼보소개소</h3> <p>북구 자산로 32(신안동) 건설상가·집수리, 오래오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티븐 특수이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 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장·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